

Ammi Newsletter

선교사의 글 | 김영애 선교사

사역자의 글 | 신순규 전도사

간증1 | Bro. Johnrey

간증2 | Sis. lileen

간증3 | Sis. Diana

페루에서 온 소식 | 파블로 전도사 · 디아나 사모 · 마리아넬라 자매

암미 선교 소식 & 암미 기도제목 | 편집부

후원감사 | 편집부

단체 및 개인 / 봉사로 수고하신 분들 / 방문하신 분들



암미선교회/암미다문화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36번길 24 Tel. 031)571-6554, 574-3797
e-mail. gloria3797@hanmail.net www.ammi.or.kr

페루 선교여행



김영애 선교사
(Missionary Gloria Kim)

남미 페루까지는 정말 먼 여행이었다. 비행기 시간뿐 아니라 페루에서도 국내 비행기와 봉고를 많이 타야 했다. 그래도 그동안 멀다고 지체해온 페루 귀국자 방문이 현실화 되고 보니 여간 뿌듯하고 감사한 게 아니었다. 페루는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물론, 계절까지도 정반대로 그곳은 지금 봄에서 여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른 새벽 페루의 수도 리마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환영을 나온 파블로 전도사와 윌리 형제가 그간 겸게 탄 얼굴로 나를 반겼다. 한국에 있을 때, 자신에게는 어려운 한국말을 시도할 때마다 “이거, 이거...”로 시작하곤 했던 윌리 형제를 보고 내가 먼저 “이거, 이거 페루!”하니까 큰 소리로 웃는다. 마땅히 유리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한 쪽 눈을 다쳐 시력을 잃은 그여서 마음이 찡했다.

첫 방문지는 리마 근처 디아나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는 한국에서 믿음을 얻은 다음 돈은 다음 문제라며 바로 귀국해 남편을 전도하고 후에 그를 목사까지 되게 한 귀한 자매이다. 이제는 중년이 된 모습으로 뜨겁게 나를 반겼다. 디아나는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더니 자신의 간증을 한 다음, 나를 나오게 하고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교회적인 환영이었다. 페루 현지교회는 뜨거운 찬양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예배를 마치고도 찬양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파블로 전도사님이 개척한 빈민가의 암미교회를 찾았을 때, 한국에서 여러 해 체류한 지체들의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다. 나를



보자 울먹이며 하나씩 안겼는데 아마 열 명쯤 되었을까. 교회에 들어가 보니 어린이들이 모여 있었고, 앞에는 놀랍게도 나를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그 중심에는 암미에서 파블로가 사역자로 페루에 파송을 받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다.

오랜만에 암미에서처럼 뜨거운 기도회를 가진 후, 한국에서 준비해간 라면 등의 선물을 안겨주고 하나씩 소감을 말하게 해봤다. 내가 그 먼 곳까지 왔다며 감동해하는 말이 이어지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을 뉘우치는 지체들이 있었다. 나를 보려고 15시간이나 걸려서 차를 타고 왔다는 우고 전도사님의 말이 믿음직했다. “저는 복음에 빛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고 전도사는 신학교 때 만난 동료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어도 아기소식이 없어 내가 물어보려고 하자 먼저 웃으면서 대답했다. “이제사 아내와 아기를 갖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체들 가운데는 귀국 후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 이혼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암미에서 세례를 받고 찬양인도까지 했던 형제의 이혼은 정말 마음이 아팠다.

다음 날은 유독 귀국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바랑까시를 찾았다. 암미에서 리더였던 마리아넬라 자매는 내가 온다는 소식을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알렸고, 그 목사님은 광고를 해서 성도들까지 나오게 했다. 나를 보자 그 목사님은 마이크를 전하며 즉석에서 설교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동행하던 사무엘 선교사의 통역으로 이루어진 그 즉석 설교, 내겐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마리아넬라는 남편 훌리오, 마리오 부부, 각기 아들을 데리고 나온 로베르또와 글라디스 등이 가족과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서 20~30명이 되었다. 설교를 마치자 그 목사님은 사도바울처럼 여종이 지체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멀리 페루까지 왔다며 감사해했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우리의 실정과는 다른 페루교회의 은혜로운 모습에 감동이 되었다.

마리아넬라는 근처에서 언니가 식당을 운영한다며 모두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후식으로 나온 애플 망고가 맛이 있기에 그 망고를 좀 사가고 싶다고 하니까 마리아넬라 남편이 조금 후에 많은 망고를 사들고 왔다.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암미에서 10년 동안이나 먹었는데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고 하여 함께 웃었다. 식사 후 마리아넬라는 꼭 와야 할 두 자매들이 오지 못했다며 내게 심방을 가지고 했다. 한국에 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가톨릭을 고수하더니 결국 예수님을 만난 그 자매가 페루에서도 귀한 역할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흐뭇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본 페루의 진풍경은 다름 아닌 다양성이었다. 자연환경부터 유명한 마추피추와 그 주변의 비옥한 땅이 있는가 하면, 곳곳에 사막 지대가 있어 부와 빈곤이 함께 섞여 사는 모습이었다. 특히 수도 리마에는 1/3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수도권 주변에 계속 판자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 나라의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태평양을 끼고 있는 멋진 현대 쇼핑몰에서 함께 한 동행인이 한 말이다. “엊그제 파블로 교회가 있는 곳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네요!” 그곳 쇼핑몰은 최고의 상가였다. 하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나, 성경은 빈부가 함께 살고 있거나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잠22:2). 더구나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천국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적으로 이슬람권 인구만큼이나 많다는 이런 빈민들을 교회가 도와시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10년 전 페루에 처음 갔을 때도 사면이 빈민촌인 것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파블로 전도사의 빈민촌 사역이 아주 중요하다. 현재 비포장도로에 초라한 어린이들 30여 명이 모이고 있지만, 그는 120여 가정이 살고 있다는 그 빈민촌의 귀한 사역자인 것이다.

페루 제 2의 도시 쿠스코에 문화 유적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스페인이 점령하기 전에 잉카 문명이 있던 흔적이 곳곳에 있었고, 대통령 궁 앞 광장에는 가톨릭 대성당이 있었다. 그 자리는 잉카 제국이 태양신전으로 우상을 섬겼던 곳인데 스페인이 강제로 점령하고 성당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톨릭도 여전히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낸 가운데 개신교가 들어가 벌써 12%의 인구가 되었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작은 선교단체 암미만 봐도 그렇다. 21년 전 우연찮게 시작된 아주민선교를 통해 이렇게 먼 페루까지 선교의 발걸음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더구나 페루에 네 명의 사역자들을 파송했으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중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10년 전 페루에 파송된 사무엘 선교사의 모습을 본 것은 큰 기쁨이요 보람이었다. 본래 선교사로서의 은사가 탁월한 그는 정말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했다.

오고가고 40시간이 넘는 긴긴 비행기 여행, 많이도 힘들었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리고 섭리의 신비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시104:24)

보물찾기



신순규 전도사 (다문화 주일학교 담당)

“꼬모 에스타스~!” 한국인인 내가 하는 스페인어 인사말에 이국적인 회색눈빛 소년의 눈이 반짝인다. 나는 그 모습에 한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작년 겨울 처음으로 방문한 암미 다문화교회의 예배에서 남미에서 온 한 어린 소년을 만났다. 그 소년은 이제껏 한국 사람이 스페인어로 말을 걸어 준 것이 처음이라 했다.

그 때, 내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이 외로운 소년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래?” 결국 이 만남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 다문화선교사역이 시작되었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정들을 만나고 이들의 문화 속에 점점 빠져들면서 하나님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즉,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이들이 공존하는 속에 하늘의 보물을 숨겨 놓으심을 알게 되었다.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보물이었다. 나는 그 보물의 매력에 빠져 마치 보물찾기에 몰입하듯 하나님을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성경의 등장인물이 이주민으로 보이고, 구약에서 신약 까지 성경의 구석구석 숨겨놓으신 나그네를 향한 말씀이 다문화이주민선교의 관점으로 읽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저 하늘 본향을 두고 온 이 땅을 살고 있는 나그네인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속에서 왜 하나님은 보화를 금고나 집 속에 꼭꼭 숨겨 두지 않으시고 밭에 감추셨다고 하셨을까? 그 허술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보화는 과연 무엇일까? 늘 나에게는 의문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여기 남양주 장현리 한 모퉁이, 암미선교회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나온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나그네를 자처하고 떠나온 자들 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었다. 나는 이제 보화를 찾은 한 사람이 되어 기쁨으로 이 보물 같은 다문화아이들과 함께 기쁨의 동행을 하게 되었다. 세상의 이기심과 기존의 편견으로 가려졌던 내 눈을 씻기운 것은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한줄기였다.

»»사역자의 글

이들과 동행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다문화라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게 될 사람으로서 다른 문화, 전통, 종교, 인종,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소통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었다.

동일한 사물을 바라보고 다른 관점과 시각을 갖는 문화적 차이를 ‘다름’으로 인정하고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했고, 자신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포용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의이며 황금률이 아닐까?

1960년대 독일로 건너간 우리나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있었다. 이들이 1970년 세계 석유파동으로 더 이상 독일에서 광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독일에 있는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들에게 영구적 노동허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그들은 계속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독일 사회는 ‘우리는 노동력을 원했지만 우리에게 사람들이 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들이 단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온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영영 볼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다름과 차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바로 이해하고, 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계층을 초월해서 하나님나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힘을 길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히브리어 “츠다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르게 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러기에 공평함, 합법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며 정의인 것이다.

작년 겨울,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데리고 눈썰매장에 갔을 때, 남미소년 사무엘은 산처럼 쌓여있는 눈과 내리는 눈을 보며 “전도사님~ 하얀 눈 이뻐요, 한국 이뻐요, 우리나라 눈 없어요. 한국 좋아요!”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언제까지나 이 아이에게 이 땅이 아름답고 친절한 나라라고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Testimony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Blessed the Lord O my soul!



존리 형제 (필리핀) / Bro. Johnrey

저는 2011년에 일본에 가서 한 공장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적응 문제들, 특히 문화, 언어, 새로운 사람들과 새 친구들을 만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와 떨어져 있을 때 향수를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친구들과 악습을 행했습니다. 술과 다른 종류의 알코올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아침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나쁜 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한 달에 한번 교회에 나갔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내 죄의 짐을 가볍게 해 줄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다녀오고는 다시 똑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필리핀에 돌아가 부모님과 지냈습니다. 나의 믿음을 따라 가톨릭 교회 미사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든다고 생각했기에 느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술과 담배 등의 악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더 나쁜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무기력 증이 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어서 힘들었지요. 매일 아침마다 심한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몸이 약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심지어 부모님과도 싸웠습니다.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In 2011, I went to Japan as a factory worker and worked for three years. Working abroad is not easy. There are a lot of adjustments especially in culture, languages, meeting new people and new friends. It is normal to feel homesick when you are away from parents and siblings.

To pacify my loneliness, I went vices with new friends. I started to drink liquor and other alcoholic. We spent whole night till morning drinking liquor. I was involved in illicit relationship. I had religion and I went to the church once a month. In my mind, at least, it helped to unload my sins. After church, I did the same sins over and over again.

After my contract ended, I went back to the Philippines and stayed with my parents. Due to my religiosity, I donated a chapel for Roman Catholic Church. I felt good because I thought it made me nearer to God. Having done this, my lifestyle had not changed. I still went to my peers and did same vices – drinking liquors and smoking.

By the way worse things came to my life. One day, I was sick of infirmity. It was hard for me because I was not ready for it. I felt weak in my body from severe headaches and back pains every morning. I easily got angry and I fought even with my parents! I lost my respect to them.

| 간증 TESTIMONY |

2014년 한국의 공장 일에 지원을 하고 다음해인 201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때도 여전히 같은 증세로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 통증은 손과 발에까지 퍼졌고 위까지 가서 항상 가슴에 심한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컨디션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마술사는 “촛불이 거의 꺼지고 있다”라고 어머니에게 말했고 내가 곧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너, 나를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럼 내게로 와서 나를 붙들어라!” 하시기에 시도해 봤는데, 급히 사라지셨습니다. 처음엔 혼돈스러웠으나 암미교회에 나오고 나서 그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요구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 암미교회에 계시던 김총명 전도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주시며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2015년 9월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나가지 않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아무 계획없이 암미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후에, 나처럼 모든 새신자들은 지미 목사님이 인도하는 소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날 설교를 다시 설명했고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공허감과 스스로 만족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하나님은 나 스스로의 계획과 모든 것을 변화시켜 해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또 하나의 해결점은 2016년 6월, 지미 목사님이 십일조에 대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탐욕의 영으로부터 놓여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기도회에 나가며 기도 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나는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기도회를 하기 전에 일찍 교회에 나가서 기쁘게 청소를 합니다.

요즘은 모든 아픔과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셨고, 한국에서 우리 글로리아 목사님의 리더십이 있는 영적인 가족을 주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By August 2014, I applied for Korea as a factory worker and came here last May 2015. That time I was still suffering the same sickness of infirmities. It became worse! Because the pain spread to my hands and feet! It goes to my stomach and I always experienced severe chest pain. With this condition, I still managed to work. I consulted witchcraft and he said to my mother, “my candle is almost gone” meaning I will die soon. There is only one solution he continued, is to pray to the “Father.”

One night I was dreaming, God said to me, “Do you know me?” from inside of me, “I said yes, I know you.” God said, “Then come and catch me!” I tried, but he suddenly disappeared! At first I was confused. I came to realize after attending Ammi church that God at that time was asking me to seek HIM.

One former pastor from AMMI, pastor Cleven came to me and gave me a Bible. He said to read it. That was September 2015. From that time on, I read and read the Bible without attending church. I really enjoyed reading the Bible! There I found that to pray to God is to pray to the Father in the name of Jesus. The Bible taught me how to pray to the Father.

Last April 2016, without any plan I went to Ammi church. After the service, all first timers like me went to pastor Jimmy's cell group. He explained again the message of that day. I was so blessed! I realized my emptiness and being self-sufficient person. From that time on, God changed everything including my own plans. I kept coming to church and listen to God's words.

Another breakthrough came to my life, June 2016, pastor Jimmy explained about tithing. I was released from the spirit of greediness. I gave back my tithes acknowledging that all I have is from Him. In Ammi, I attended prayer meeting every Saturday and after prayer, we continue to study the Bible. As I love it so much, I go to church earlier and joyfully clean up before the prayer meeting.

Nowadays, I am free with my pains and infirmities. God healed me! He used me in a simple way and gave me a spiritual family in Korea through the leadership of our pastor Gloria. Every time I felt weak inside, I say to myself, “Blessed the lord Oh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ed his Holy name!” I thank God for the strength I receive everyday!

Testimony
2

주안의 기쁨

The joy in the Lord!



아일린 자매 (필리핀) / Sis. Ailyn Lopez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삶은 아무 방향도 목적지도 없는 여행과 같았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에 계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역기능적인 가정의 분위기에서 제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어 어머니와 정상적인 관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나를 더 잘 키워주실 거라고 믿고 아버지를 선택해서 그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친한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은 흐트러졌고 한 가족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몰랐고 부모의 돌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그분 안에는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깨어진 가족이었지만 그것이 나로 예수님을 알게 해 준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간 것은 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날은 주안에서 처음으로 기쁨을 느낀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시절까지 계속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음에도 주님을 더 알아서 더욱 흥미있고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My life before I came to know the Lord Jesus Christ is like a journey that had no direction and destination. I didn't have idea that there is God above. It is because I grew up in a dysfunctional family. Not only that, my family was broken and has no intimate relationship with my mother.

I grew up with my father because I chose him believing I would be stronger. Unfortunately, he left us to his close friend. As a result, my siblings were scattered and we didn't grow up as one family. As a result, I did not enjoy my childhood and feel the care of my parents.

God is good in my life; there is no garbage in Him. Although we have a broken family but this led me to know the Lord Jesus. I was seven years old then the first time to go to the church. My father's friend brought us to the church. It was a glorious day! It was my first time I felt the joy in the lord. I kept coming to church since then till my school days. Although I am still young that time but I had the desire to know Him more with more excitements and unexplainable feelings.

| 간증 TESTIMONY |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더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었는데 그는 내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준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주 대했고 그분은 내게 그의 사역이 성공적이 되도록 그분을 섬길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삶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뭔가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관계에 중심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가 8년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 중의 하나가 목사가 되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머니와 두 형제들이 그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8년,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또 다른 시련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남기지 못했어도 더 중요하고 귀한 자산인 주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영적인 가족인 암미교회와 그 지도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가족인 것이 행복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약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 항상 일깨워주시고 여기 한국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추석수련회가 나의 일생에 기쁜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연합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참석자들의 삶에서 역사함을 보았습니다. 한 친구를 초청해 참석하게 했더니 하나님 이 그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수련회는 나를 포함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봐주는 암미교회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By the grace of God, my father supported me to know Jesus more. He was used by God as an instrument to know God more. I encountered God and He gave me a heart to serve Him to the success of His ministry. I have to do something for others to encounter God in their lives, telling them that there is hope in God.

God never failed me. He made a way that my family be united again and Jesus became the center of our relationship. For me it was impossible my family to be united because my parents were separated for eight years. For the long I have never been with my mother and my other siblings. God made it possible! Not only that, gave called one of my brothers to become a pastor and now he is serving God in mission! My mother and my 2 brothers were also serving with him in mission.

Year 2008, my father died because of sickness. Another trial that we overcame because God is with us. Moreover, we are thankful that God used my father for us to know God. He didn't have material blessings left us, but the relationship we have now with Jesus is the most important treasured possession he left to us.

I thank God for Ammi church and her leadership, my spiritual family here in Korea. God did not allow me to be away from His presence. I am happy that I am part of this family. I felt here that I am growing more in the Lord and using me for His glory. There are times that I felt weak but I thank God because He used people to remind me always, helping me grow spiritually here in Korea.

I had Chuseok retreat and it was joyous days in my life. I saw the unity and the presence of God moved in the lives of those who attend. I invited one friend and she joined us in the camp. I heard that God made a way to restore her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 The retreat really changed lives including my life. Thank God for the leadership of Ammi church for providing us spirituality while away from home. To God for the glory!

Testimony
3

놀라운 축복들

Wonderful blessings!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이 내 생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한
친구가 내가 그분을 알도록 도구가 되
어주었고 그는 이곳 한국에서 나를 교
회로 인도했습니다.

암미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
운 장소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이 교회
를 사용하셔서 나의 관점이 바뀌어지
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족으로
서 교회에 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나의 기도생활이, 특히
나 해외에 살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아나 자매 (필리핀) / Sis. Diaane

The greatest thing happened in my life
when I came to know the Lord Jesus Christ.
My old life has gone and He changed me
from glory to glory. My friend was used by
God to know Him and brought me to the
church here in Korea.

MMI church is considered my new place
to worship God and God used this church to
change my life's perspective. I praised God
because we go to church as one family. Also,
my prayers to God have helped me a lot
especially living abroad.

| 간증 TESTIMONY |

타국에서의 삶을 말한다면, 특히 문화나 언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면했던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임신이 된지 두 달 후에 유산이 된 자궁 안에서 아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들을 잃는 경험들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은 계속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슬퍼하지 않게 저는 억지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도 나는 불교 신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주간 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의사들은 다시 내가 유산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분께 울면서 마음을 쏟았습니다. 기도 후에 그룹 기도 모임을 가지고 나서 기분이 좋았고 내적으로도 새로워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 후에 생리가 없기에 체크를 해보러 남편과 함께 의사를 찾아가니까 그것은 분명했지만 한 주 후에 생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다른 의견을 위해 다른 의사를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유산이라는 같은 말을 할 줄로 알고서 이미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peaking of living abroad, it is not easy especially due to adjustments of culture and language. One of the struggles I encountered is living with the parent-in-laws. But by the grace of God I was able to survive.

I experienced miscarriages three times. After two months into pregnancy, the baby was not able to stay longer in my womb which caused miscarriage. It was very hurtful experiences losing my babies. On my fourth conception, it is a miracle.

For a week I was bleeding and the doctor told me that I will have miscarriage again. I went to the church and prayed to God. I cried to Him and poured out my heart. We were having group prayer meeting and after prayer, we went out from the church feeling good and refreshed inside.

After one month I was delayed with my monthly menstruation. We went to the doctor for check up and it was positive but a week after I had my monthly menstruation. My husband suggested seeing another doctor for second opinion. The truth is I already had phobia because I knew the doctor will say the same thing – miscarriage!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의사는 내가 임신한지 2달 2주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기였습니다. 내 삶에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예수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 고마워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내게 보여주신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참으로 그분을 향해 울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공짜로 필리핀 여행을 하며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두 자녀를 주셨고 사랑하는 남편과 암미교회를 주셨습니다. 매 순간 문제들이 있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지만, 그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암미교회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But to my surprise, the doctor said I was pregnant for 2 months and 2 weeks!! And it was a baby girl. It was a shocking moment in my life. I was not expecting that good news! When we came home, I went to the comfort room and told Jesus, “Thank you Lord, God is good all the time!” I really cried to God for all the blessings and goodness He has shown me.

Just recently, we went on vacation to the Philippines with free air ticket and I felt so blessed! God gave me two children and loving husband and my church AMMI. Every time I have problems and felt homesick, I just go to the church and prayed and God refreshed me with His Spirit! I learned to love God and have faith in God with the help of AMMI church. My prayers now is that many more people will know Jesus as their God! Praise the Lord!





글로리아 선교사님의 감동의 페루 방문



파블로 전도사 (Pastor Pablo)

작년부터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페루에 오신다는 소식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 10월 1일이 되어서야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10월 30일에 저희 페루 암미교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사무엘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이 곳, 가르데니아스 데 라 뼐라데라를 방문한다는 것만으로 나의 심장이 더욱 뛰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들뜬 나머지 밤을 지새우고 10월 26일 오전 5시 30분에 선교사님을 마중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6시 30분에 도착하여 사무엘 선교사님을 만나고 조금 기다리다가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 일행들을 기다리는 동안 윌리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영적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이 되었습니다.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나오시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종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분의 사역자로 삼아주셨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 주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한 이 여종을 어찌 안 좋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다가올 때, 저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포옹을 했습니다.

그 날 보내드리고 나서 윌리 형제와 아침식사를 하려고 시내를 걸어갔는데 우리의 대화 내용은 온통 암미교회와 글로리아 선교사님 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지체들을 모임에 초청하려고 전화를 하고 있었고, 마리아넬라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바郎까시 방문을 위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있었고, 다니 형제도 참석할 것과 침보페의 헨리 형제와 함께 찬양인도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대하던 그 날이 되자, 아침 일찍부터 다니, 헨리, 윌리 형제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 그 날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연습하는데 꼭 한국 암미교회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로리아 선교사님과 일행들은 오후 3시 35분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요! 매일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신 나의 영적 어머님이 이 누추한 곳을 방문한 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 시간이 왔는데 그 말씀이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귀국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은 아주 영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나를 세워주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후, 한국 식당에 가서 맛있는 삼겹살을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디아나 자매 가족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 글로리아 선교사님과 함께 바郎까 시로 출발했습니다. 집결 장소였던 마리아넬라 자매가 섬기는 교회에 도착하고 찬양 몇 곡을 부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친 후에 마리아넬라 자매와 그의 남편인 훌리오 형제가 준비한 점심을 했는데 거기서 로베르또, 마리오 형제들과 룰데스 자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점심 후에는 글로리아 선교사님과 안토니아와 아라셀리 자매를 심방하러 갔습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한 안토니아 자매 집에 갔는데 우리의 방문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전한 말씀을 받고 서로 헤어질 때 귀국 후 줄곧 가톨릭을 다녔던 안토니아 자매가 이제부터 마리아넬라 교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아라셀리 자매 집을 방문했는데 그 남편 빼드로가 낮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라셀리는 부부 간의 문제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글로리아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자 아라셀리 표정 속에서 처음에 볼 수 없었던 미소와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리마로 다시 돌아오는 길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했던 글라디스 루나 자매와 잠이 들었었는데, 깨고나서 선교사님에게 내 삶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을 통역으로 세워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아마도 제 때에 말씀 드리지 못한 이야기, 리마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저의 결혼 이야기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리마로 돌아와서 저의 개인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저녁식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왜 성인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왜 성장 안 되는지를 보니 나의 결혼 때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잠시 잊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일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급적이면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는 직장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랑의 권고를 받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던지 개인 사업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리아 선교사님의 방문이 나에게 영적으로 큰 위로의 시간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 밖에 없습니다. 암미교회가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암미 가족에게



디아나 사모 (페루 가정예배 센터 교회)

암미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저희 고국 페루에 영적 자녀들을 돌보시기 위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귀국자들을 위해 한번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으리라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서로 나누고 다른 이들을 위해 생명을 주고, 조건없이 남을 돌보는 일입니다. 주님이 잠깐 동안 살게 하신 한국에서 배우게 하셨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게 되고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키며 서로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다른 한국 일행들과 함께 저희 ‘가정예배 센터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많은 시험을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저의 남편 루이스 알비라도 목사님과 함께 ‘가정예배 센터 교회’에서 목회한지 2년이 지났고 봉사, 평생 부부교실 교사,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 빛어지기도 하고, 훈계를 받기도 했지만 항상 세움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며 마음을 다해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두 딸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첫째 딸 디아나는 친양 인도자로, 데보라는 9살인데 진리를 알도록 저희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저희의 필요에 의해 일반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진과 같은 큰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으며 가족으로써 저희의 연합을 더욱 확인하기 위해 저의 남편의 건강문제와 함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겹쳤습니다. 저에게 걱정을 끼치



기 싫어서 나누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어 큰 시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저희 큰 딸이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기적적으로 그리고 항상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딸이 인디아나의 휴스턴 대학과 연결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등록금을 책임지시고 허락해주심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직장이 없어도 매달 \$1020 학비를 한 번도 건너 뛴 적이 없고 다음 학기도 이미 다 지불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새 시작을 위해 조언과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을 때 마침 글로리아 선교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여 그 위에 서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성령의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정과 다음세대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기 위해 강건하길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가정이 하나가 되세요. 행복한 가정은 세 가닥의 줄을 엮을 때 끊어지기 힘든 것처럼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교하여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필리핀, 페루 등 암미에서 진리로 양육을 받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편집자 주 : 디아나는 암미 초창기 멤버로 믿음을 얻고 바로 손상된 가정을 다시 세우려고 돌아간다는 간증(2002년 추수감사절)을 한 후, 귀국한 자매로 돌아가 금식기도를 하며 남편을 용서하고 주님께 인도한 다음 후에 그가 목사까지 되게 한 자매이다.)





글로리아 선교사님 방문의 감동

마리아넬라 (Marianela)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그분에게만 돌려 드립니다. 아멘!

제 이름은 마리아넬라이며 페루 사람으로서 수년 동안 암미교회를 섬겼습니다. 거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해주신 글로리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가 살고 있는 바랑까(리마시에서 약 세 시간 떨어진 곳)라는 도시에 저희의 사랑하는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해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었지만, 저희 교회에서 전하신 말씀이 그 날 모였던 모든 이들을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전달이 되면서 듣는 이에게는 더욱 더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토니아 자매 가정을 방문하면서 있었던 경험을 나누기 원합니다.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믿음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천지의 왕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딸로서 올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가운데 이곳까지 찾아와 주신 글로리아 선교사님과 사무엘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않아 시간이나 거리나 영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희의 리더이신 두 분 안에 나타나서 더욱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7.3.

올해 맥주감사주일에도 올해도 지체들이 각기 감사나무 열매에 감사내용을 적고 상반기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2부 감사축제는 지미 목사(필리핀)의 진행으로 각 나라 별로 준비된 찬양과 울동으로 이어졌으며 소망교회 성도들이 비누와 샴푸 선물을 준비하여 참석하므로 기쁨이 더했다. (참석인원 96명)

여름
수련회

8.2. 10:30 - 21:00

경기도 가평 대성천 계곡에 다녀오는 일일 수련회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 직전 적절한 비로 인해 물놀이가 좋았고, 다녀와 레크레이션과 기도회(부흥회)를 가졌으며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관람했다. 올해는 멤버들의 휴가일정이 분산되어 참여인원이 많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참석인원 어린이 포함 45명)



암미 선교 소식

Ammi
Mission News



8.28. / 10.2.

8.28과 10.2. 두 차례에 걸쳐 처음으로 주기도문 암송대회가 열렸다. 그룹별로 모국어 주기도문을 외우는 훈련을 통해 기도의 진수를 이해하며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 우승은 필리핀 A팀에 돌아갔고, 남미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주기도문
암송대회



9.14.-14.

추석
수련회

“하나님 나라의 전진”(Advancing God's Kingdom)이란 주제로 가평 소재 남이섬하이리조트에서 추석수련회가 있었다. 초청강사인 필리핀 지미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 연합과 겸손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전했으며 많은 지체들이 도전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다. 올해는 새암교회 청년부가 참석해 야외운동과 페스티벌을 함께했다. (참석인원 : 9개국 110명)



가을 야외예배

10.16.

산림교육원의 배려로 가을 야외예배 및 숲체험 프로그램(숲체조, 숲 재료를 이용한 장식품 만들기)을 가졌다. 비로 인하여 적은 인원(81명)이 참석하여 아쉬웠지만,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출신의 KIIP 한국어 교육 학생들이 참석하여 감사했다.

페루 선교여행

10.25.-11.3.

열흘간 귀국자 방문의 페루선교여행이 있었다. 거리와 시간 관계로 세 교회(디아나, 파블로, 마리아넬라)를 방문하며 귀국자들을 만났고, 암미에서 믿음을 얻었으나 그동안 주저앉은 안토니아, 아라셀리 가정을 심방해 그들을 세워주었다. 오랫만에 페루 귀국자들과의 만남은 참으로 진한 감동의 시간이었고, 긴 선교여행 길에 암미의 후원교회 세분의 목사가 동참해 힘이 되어 주었으며 사무엘 선교사는 모든 안내와 통역을 맡아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었다.





암미 선교 소식

11.4.

CGN
TV 방영

11월 4일 오전 11시30분 선교방송 CGN TV '거룩한 바보들' 프로그램에 암미선교회편이 방영되었다. "이주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한 김영애 선교사, 늘 뜨겁게 기도하고 심방하며 한국에 온 이주민들을 품으려는 김영애 선교사의 따뜻한 이야기"로 소개되었다. www.cgntv.net 검색어 [김영애]



11.20.

추수감사절과
감사축제

추수감사주일에 전도를 목적으로 한 감사축제를 가졌다. 감사예배를 통해 정성된 추수감사 현금을 드리고, 국가별로 순서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번 감사축제에 새로이 경기중앙교회 에바다 선교단의 국악 워십이 있었다. (참석인원 108명) 성례식은 한 주 전(11.13.)에 가져 다라(캄보디아)와 피로즈(네팔) 두 형제들이 학습을 받았다.



성탄절 행사

*Happy
New Year*

12.24.

암미 선교 창립 21주년이 되는 성탄전야(크리스마스 이브)에 성대한 성탄축제 (Christmas Celebration)가 있었다. 성탄이 주일과 겹쳐 외부 방문 팀이 없자 스스로 필리핀과 남미팀, 베트남 그리고 다문화주일학교 팀이 찬양과 드라마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전도축제를 가진 것이다. 주님이 오신 거룩한 성탄, 암미가 시작된 그 귀한 성탄의 밤에 성탄선물을 나누며 기쁨이 가득했다.



암미 기도 제목



1. 사해(2017)에는 더 많은 이주민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2. 많은 귀국자들을 통해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3. 암미가 파송한 사역자들을 위해
(사무엘, 파블로, 우고 - 이상 페루, 사키 - 인도, 신일호 - 태국)
4. 암미 스텝진의 팀워크와 초교파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5. 사해 1.27.~29.에 있을 구정수련회 준비를 위해
(좋은 프로그램과 날씨, 강사, 봉사자 및 재정을 위해)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2016. 7. 1. ~ 2016. 12. 31. |

단체

가나안교회, 경기은천교회, 내곡교회, 늘만나식품, 대전대일교회, 덕소중앙교회, 동현교회 선교위원회, 맑은샘교회, 명성교회, 바이오헬스, 벤엘교회, 보성여전도회, 분당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새암교회, 생명의빛교회, 구리성광교회, 성악교회, 소망교회 국내선교부, 예심교회, 제일평화교회, 주양레이저용접 진접오남지역교회연합회, 청조교회사회복지위원회, 천성교회, 퇴계원 성결교회, 퇴계원제일교회, 푸른초장교회, 화평교회, CGN TV

개인

고명숙, 구자영, 김금자, 김기복, 김미화, 김성자, 김신우(김윤정), 김영복, 김영숙, 김영호, 김옥순, 김정숙, 김정재, 김지선, 김혜성, 민문기, 민중규, 박가영, 박상록, 성범규(조아정), 신광애, 윤동연, 윤은희, 윤찬주, 윤형진, 이정자, 이현갑, 한봉숙, 한세현 조말수, 최병순, 최원희

봉사로 수고하신 분들 : 2016. 7. 1. ~ 2016. 12. 31.

■ 추석수련회

- 특별헌금 : 필리핀 그룹, 덕소중앙교회, 경기은천교회, 새암교회, 주숙일, 민문기, 김지선, 윤형진, 이영희, 김금자, 박상록, 윤동연
- 물품후원 : 내곡교회(과자), 두란노교회(고구마), 천성교회(포도, 음료), 푸른초장교회(사과), 김명숙(배)
- 식사봉사 : 박순애, 문영덕, 신순규
- 레크레이션 : 홍정열, 새암교회 청년부

■ 식사봉사 늘푸른진건교회, 다일교회, 은성교회, 가나안교회, 천성교회, 맑은샘교회, 내곡교회, 새암교회, 두란노교회, 푸른초장교회, 박상록, 탁진희, 박희숙, 박은영

■ 의료봉사 중계충성교회, 할렐루야교회

■ 이미용봉사 백영희

■ 한국어교실 박소원, 이강녀, 이재모, 한세현

■ 선교회를 방문해주신 분들 예수길벗교회, 경기중앙교회 에바다 선교회, 국민일보, CGN TV, 진접오남지역교회연합회, 차빌립

■ 구제, 선물 및 기증

윤혜성(식료품), 산림교육원(간식), 예수길벗교회(과일, 성탄케이), 김명숙(배), 김영호(감), 수지(감), 천성교회(컴퓨터 셋트), 의정부민락교회(성탄피자), 준비된교회(쌀)

암미선교회
후원구좌

국민은행 838-21-0141-221 예금주: 김영애 (암미선교회)
농협 204051-51-055753 예금주: 김영애
우체국 013797-02-014-361 예금주: 김영애

※ 송금 후 확인전화를 꼭 주세요! 주소확인이 필요합니다.

AMMI MINISTRIES for Foreign Workers!

- English & Korean Worship Service (Sun 11:00 am) 영어/한국어예배(주일 오전 11시)
 - KIIP Korean Class (Sun 1:30-7:00 pm)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실(일요일 오후 1시반-7시)
 - Counseling 상담
 - Medical Clinic (Every 2nd Sun 1:30-4:00 pm) 의료진료(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반-4시)
 - Haircut Service (Every 4th Sun 12:30-1:30 pm) 이미용서비스(매월 넷째 주일 오후 12시반-1시반)
-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John 10:27*

발행인 조말수

편집위원 김영애 류영성 김혜미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36번길 24

전화 031)571-6554
031)574-3797
010-5390-3797

팩스 031)571-6521

이메일 gloria3797@hanmail.net

홈페이지 www.amm.or.kr

(사) 암미선교회 조직

자문위원 김명혁 안만수

김희수 최삼경

이사장 조말수

대표 김영애

운영위원회 김병식 권중현 김응렬

이성무 함형민 임재용

김영



‘암미’는 히브리어로 “내 백성”(호 2:1)이라
는 뜻으로 이 땅에 온 외국인 나그네를 부르시
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Ammi’ means “My people” in Hebrew
and it expresses the Lord’s mind calling
for also foreign strangers here.



디자인 꿈마을예닮

02)529-4003

Ammi Mission Church

031)574-3797, 571-6554
010-5390-3797